EduCore Daejeon

한국 교육의 중심 • 미래 교육의 중심 • 행복 교육의 중심

전국 시 · 도교육감협의회 해외교육기관 방문에 따른

북유럽 방문 결과 보고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 ····· 1
2. 방문 국가 ····· 1
3. 방문 기간 ····· 1
4. 방문단 구성 ····· 1
5. 주요 방문기관 내용 ····· 1
6. 주요 일정 및 방문기관 ····· 2

Ⅱ. 방문국 기본정보 ····· 3
1. 러시아 ····· 3
2. 덴마크 ····· 5
3. 아이슬란드 ····· 7
4. 벨기에 ····· 10
5. 룩셈부르크 ····· 12

Ⅲ. 방문국 교육제도 ····· 14
1. 러시아의 교육제도 ····· 14
2. 덴마크의 교육제도 ····· 17
3. 벨기에의 교육제도 ····· 21

Ⅳ.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 ····· 23
1. 주요 방문기관 ····· 23
2. 각 나라 교육 기관별 방문현황 ····· 23
3. 방문기관 소개, 방문 소감 및 시사점 ····· 24

시·도교육감협의회 해외교육기관 방문 보고서[북유럽]

Ⅰ. 개요

1. 목적

○선진국의 교육제도 및 주요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대한민국 교육발전 방향 모색 및 건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 제고

○국외 우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우수사례 탐색

2. 방문국가 : 러시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5개국

3. 방문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간	일수	비고
북유럽	2013. 9. 22.(일) ~ 10. 2(수)	9박 11일	

4. 방문단 구성

순	소속	부서	직급(책)	성명	성별	비 고
1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 육 감	김신호	남	
2		초등교육과	초등과장	박주삼	남	
3		비서실	수행비서	고영규	남	
4		총무과	사 무 관	이용복	남	
5		초등교육과	사 무 관	허진옥	여	
6		초등교육과	장 학 사	이재숙	여	
7		학교정책담당관	주 무 관	이영춘	남	
8	지족고등학교	·	교 장	김연용	남	
9	둔산여자고등학교	·	교 장	나태순	남	
10	대전둔천초등학교	·	교 장	송영숙	여	
11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 학 사	한 혁	남	
12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장 학 사	김향림	여	

5. 주요 방문기관 내용

방문국	도시	주 요 내 용
러시아	모스크바	- Intellectual School (수학·과학 영재학교) 방문
	페테르부르크	- Tutti School (음악·예술 영재학교) 방문
덴마크	코펜하겐	- Ørestad Gymnasium 방문
벨기에	브뤼셀	-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방문 - ATC 고등직업학교 및 프란시스코 훼레 대학 방문

6. 주요 일정 및 방문기관

순	날 짜	주 요 일 정	비고
제1일	9.22.(일)	인천공항 출발 → 러시아 모스크바 도착	
제2일 ~ 제3일	9.23.(월) ~ 9.24.(화)	모스크바 수학·과학 영재학교(Intellectual School) 방문 모스크바 출발 →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	
제4일 ~ 제5일	9.25.(수) ~ 9.26.(목)	페테르부르크 음악·예술 영재학교(Tutti School) 방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발 → 덴마크 코펜하겐 도착	
제6일 ~ 제7일	9.27.(금) ~ 9.28.(토)	웨레스타드 고등학교(Ørestad Gymnasium) 방문 덴마크 출발 → 아이슬란드 도착	
제8일 ~ 제9일	9.29.(일) ~ 9.30.(월)	레이캬비크 시청사 및 교육 시설 견학 아이슬란드 출발 → 네덜란드 도착(경유) → 벨기에 도착 벨기에 교육부 방문 ATC 고등직업학교 및 프란시스코 훼레 대학 방문 벨기에 출발 → 룩셈부르크 도착	
제10일	10.1.(화)	룩셈부르크 출발 → 독일 도착(경유) → 프랑크푸르트 출발	
제11일	10.2.(수)	인천공항 도착	

Ⅱ. 방문국 기본 정보

1. 러시아

매서운 눈보라가 사계절 계속해서 몰아칠 것만 같은 동토의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4대 강국의 하나였지만 공산주의국가라는 이유로 인해 실제적인 지리상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 그렇긴 해도 영화 "백야"와 "닥터 지바고"의 낭만으로 애틋하게 기억되기도 하는 곳, 일반적으로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즉 구소련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다.

◈ 수 도: 모스크바 (Moscow, 864만명)
◈ 인 구: 1억 4,000만명 (2013년 기준)
◈ 면 적: 17,07만㎢ (한반도의 77배)
◈ 주요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 주요민족: 러시아인(82.6%), 우크라이나인(3%), 타타르인(3.8%),
◈ 주요언어: 러시아어(Russian)
◈ 종 교: 러시아정교 15%, 이슬람교 10%, 그리스도교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정치·경제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임에 틀림없지만 지금도 그 곳에 가면 지극히 러시아적인 과거 권력의 흔적들과 더불어 봇물처럼 들이닥친 서구사회의 모습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들을 만날 수 있다.

지리

동경 19, 서경 169.5, 북위 44°- 82°사이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의 영역은 북동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서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이른다. 이 같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동서 두 지점 사이에는 11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총면적은 17,075,400㎢로 한반도의 77배, 미국의 1.8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쪽으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남쪽으로는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동쪽으로는 북한과 접하고 있다.

사회 문화

전체 인구는 약 1억 4,000명으로 10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82%가 러시아인으로 가장 많으며 4%의 타타르인, 3%의 우크라이나인과 그 외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통용된다. 러시아인의 대다수는 그리스정교를 믿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수지만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등을 믿는다. 그러나 이교적(민속신앙)인 신앙이 기독교와 결합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신앙을 이중 신앙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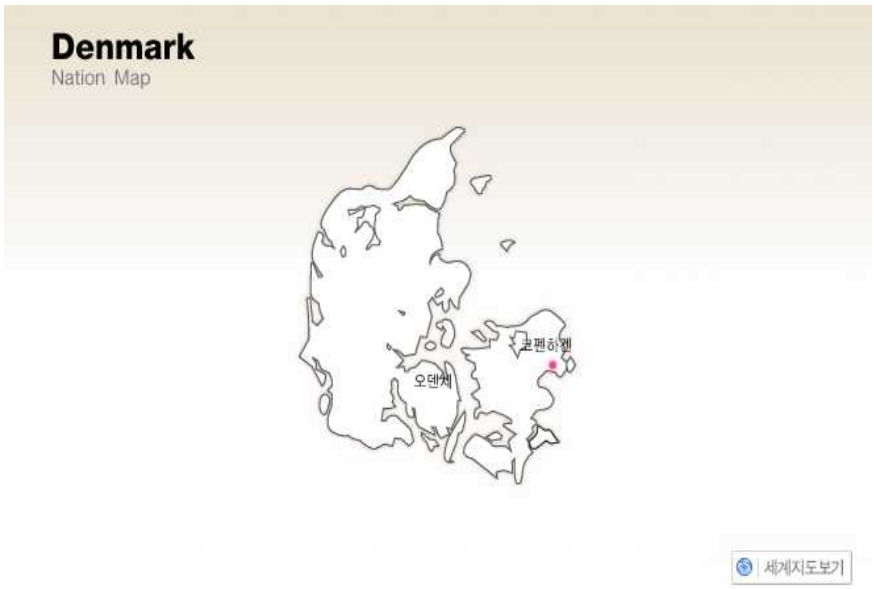
러시아의 경우 봄, 가을은 짧은 대신 겨울은 보통 10월이면 시작되는데 한 겨울에는 보통 아침 8시나 되어야 해가 뜨고 오후 4시경이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봄이 오는 4월 중순 무렵까지는 거의 매일 길가에 쌓여져 있는 눈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발달된 기계, 차량까지 동원하여 매일 부지런히 눈을 청소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다. 반면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모스크바 등 북구 도시에서 백야현상이 나타나는데, 밤11시가 지나서야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해가 지고 난 어스름한 새벽에도 길을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다. 햇볕은 따갑지만 습기가 없어서 더운 건 그리 못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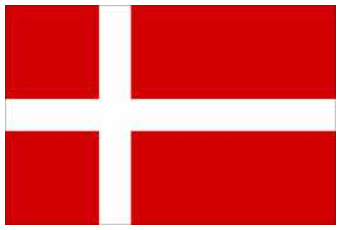
통화

러시아 화폐단위는 루블(ROUBLE; RUB)이다. 1루블은 100코페이카이다. 1, 5, 10, 50, 100루블(P) 주화와 100, 200, 500, 1000, 5000, 10000, 50000, 100000루블(P) 지폐가 있다. 코페이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유통되지 않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구소련의 다른 자치공화국들은 독립적인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 1유로 = 약 30RUB, 러시아 1루블 = 33.38원(2013.10.10. 기준)

2. 덴마크





덴마크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만큼은 풍요롭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약 406여개에 달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서양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랜드와 영국 북쪽의 파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약 137만명)
◈ 인구: 약 550만명
◈ 면적: 43,094㎢(한반도의 1/5), 자치령 그린랜드 및 페로제도 제외
◈ 주요도시: 올복(Aalhorg), 오후스(Arhus), 오덴세(Odense)
◈ 주요민족: 북게르만계의 데인족(Danes)
◈ 주요언어: 게르만계의 덴마크어(국민대다수 영어 구사 가능)
◈ 종교: 복음루터교 95%, 로마가톨릭&그리스도교 3%, 이슬람교
◈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국민 550만명 중 약 5분의 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바이킹의 후예인 덴마크인들은 오늘날 낙농과 공업 디자인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주어 계급의 차이가 적은 평등·자유·복지의 사회를 이룩하게 만들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지리

총면적은 4만 3,000㎢로 동쪽은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쪽은 노르웨이, 유틀란트 반도의 남부는 독일과 접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는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핀섬, 셀란섬, 보른홀름섬 등의 주요 3개의 섬을 주축으로 총 405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북유럽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럽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이다.

기후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온화하나 연중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 변화 심하다. 2월 평균기온 영하 0.4도, 7월 평균기온 16.6도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이다.

사회, 문화

덴마크의 인구는 약 550만명으로 덴마크어가 공용어이며, 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언어와 영어가 통용된다. 주요 종교는 프로테스탄트로 덴마크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낙농이 덴마크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로 아주 미비한 편이며, 공업 디자인 부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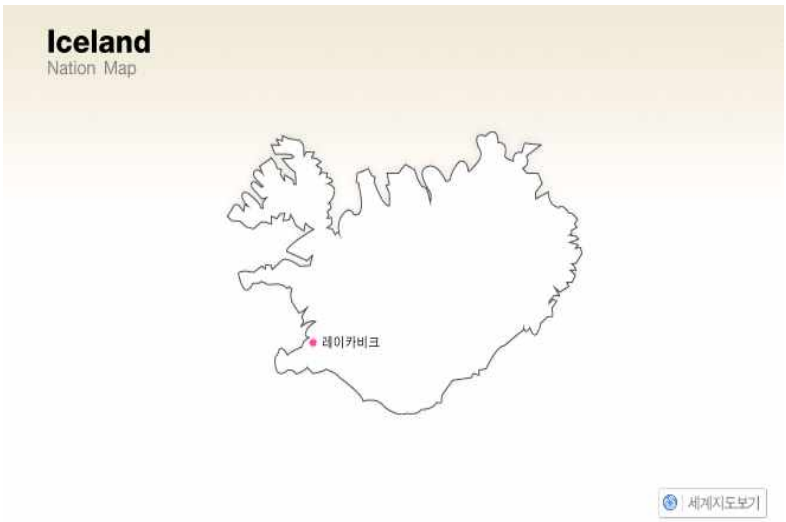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3월부터 9월까지의 서머타임 실시기간에는 7시간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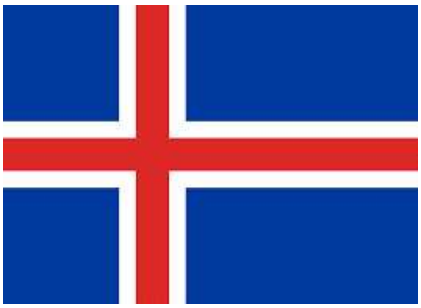
통화 / 환전

덴마크 크로네(Danish Krone)를 사용하며 Dkk로 표기한다. 1크로네는 100외레(Ore)이며, 지폐는 1,000, 500, 200, 100, 50 크로네로 구분되며 동전은 20,10, 5, 2, 1크로네 50, 25외레(Ore)가 있다.

환전은 공항, 은행, 시내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다. 공항, 중앙역 소재 은행 (Den Danske Bank)은 주말 외에 영업시간 이외에도 이용 가능하다.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호텔이나 시내환전소 보다 유리하다. 시내 환전소의 경우 매도환율을 매입환율인 것처럼 높게 게시해 놓고 손님을 끌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가능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3.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면적은 103,000㎢로 한반도의 약 1/2정도이며 여러 개의 작은 섬과 하나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와 그린랜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 63°15′~ 66°30′(북극권)에 걸친 남북길이가 약 350㎞이고, 서경 13°45′~ 24° 15′에 걸친 동서길이가 약 540㎞이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남동쪽으로 800㎞ 정도 떨어진 영국의 스코틀랜드이다.

◈ 수도: 레이캬비크(Reykjavik: 22만명)
◈ 인구: 약 32만명
◈ 면적: 103,000㎢(한반도의 약 1/2)
◈ 도시: 코파보규르(Kopavogur), 아큐레이리(Akureyri), 호르나피요듀르(Hornafjordur)
◈ 민족: 노르웨이 바이킹족 및 켈트족
◈ 언어: 아이슬란드어
◈ 종교: 복음루터교 86%, 레이캬비크 자유교회 2%, 로마가톨릭

기후

기후는 열대성·북극성 기류, 그리고 멕시코 만류와 동그린랜드 극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동그린랜드 극해류를 따라 때때로 북극 유빙이 아이슬란드로 밀려오지만, 멕시코 만류가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기후가 따뜻하다. 겨울은 길고 춥지만 극한적인 추위는 없고 여름은 겨울보다는 따뜻하지만 여전히 추운 편이다. 내륙 산악지역을 제외한 7월 평균기온은 11℃ 정도이며 1월 평균기온은 0℃이다. 연평균강수량은 남동지역의 4,100㎜ 이상으로부터 중북부지역의 40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회문화

인구의 반 이상이 레이캬비크 그 주변지역에 살고 있으며 섬 중앙부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2013년 현재 인구는 32만명이며 인구밀도는 2.5명 /㎢이다.

아이슬란드의 국민은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며, 그들의 정확한 기원과 민족적 구성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마다 주장이 다르지만 60-80%가 순수 북방혈통으로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왔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켈트족 혈통이다. 주요민족은 놀드족과 덴족이다.

종교는 16세기 중엽 이래 루터교가 지배적인 종교여서 국민의 97%가 국교인 복음루터파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루터교 복음파이다.(루터교 복음파 93%, 기타 7%).

공용어로 아이슬란드어를 사용하며 인종은 아이슬란드인 97%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아이슬란드인 97%, 기타 3%) 공용어는 옛 노르웨이어에 가까운 아이슬란드어이며 기타 주요언어로 덴마크어가 있다. 문맹율은 1% 정도이다.

국민성은 상당히 자유분방한 편이며 아이들의 55%가 사생아이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일주일에 54 - 56시간씩 일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근면성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열렬한 순수 혈통주의자인 동시에 전통주의자적인 면을 보이며 남자 바이킹들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지만, 여자들도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 전의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7～15세 사이에는 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교육으로 영어와 덴마크어에 중점을 두는 문과학교와 기술에 중점을 두는 기술학교가 있다. 그 상급학년으로 고등학교·사범학교·농업고교·상업고교·항해학교·무선학교·기계학교 및 기타 특수학교가 있고, 대학이 교육의 정점(頂點)이다. 국립·대학·시립·지방 도시설립 도서관이 많고 사설도서관도 있다.

신문은 일간지가 5종이며, 그 밖에 3개의 주간지와 약간의 지방지가 있다. 라디오 방송은 1930년부터 시작되었고, TV 방송은 1966년에 시작되었으며, 출판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국민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문학·회화·조각·건축·음악·연극 등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문학에는 많은 전승문학이 있으며, 중세의 시인 스노리 스툴루손은 북유럽 신화와 영웅담 등을 모아 《에다》(1,200년경)를 편집하였다. 또 현대의 작가 H.K.락스네스는 1955년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AD 1180년부터 1300년까지 쓰여진 대부분의 대하소설 사가(Saga)는 아이슬란드의 가장 잘 알려진 문학 장르이다. 사가는 노르웨이계통의 세계에서 현존하는 작품들 중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사가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역사와 혈통을 바탕으로 A.D. 1100년까지의 노르웨이계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 사가 작가들은 영웅들의 성공, 영광, 용기의 미덕, 자부

심, 명예 등을 기록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으며 후기 사가 작품들은 초기 아이슬란드 정착민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미술은 음악과 달리 19세기 이전에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민의 수가 적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는 아그리머 존슨(Agrimur Jonsson), 존 스테판슨(Jon Stefansson), 요하네스 칼발(Johaness Kjarval)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가들이다. 가장 잘 알려진 현대 조각가는 아스문더 스베인슨(Asmundur Sveinsson)으로 그의 작품 대부분이 아이슬란드의 전래 민요나 사가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정치

1944년 6월 17일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면서 제정된 헌법에 의하면 아이슬란드는 명목상의 대통령을 둔 내각책임제이다. 국회는 임기 4년의 63석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임기 4년의 대통령은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1996년 8월 올라퓌르 그나르 그림손(Ólafur Ragnar Grímsson)이 취임한 뒤 2009년 현재 네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2006년 집권 독립당과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이루다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연정이 붕괴되고,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임시 연정을 이루어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Jóhanna Sigurðardóttir)가 총리가 되었다. 2009년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연정이 63개 의석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좌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대법원과 8개 지방법원이 있고, 법관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재정은 세출의 중심을 다른 북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교육과 사회보장에 두고 있다. 이밖에 도로·교량·통신·어업·상업 등에 대한 세출도 많다. 육해공군은 없으나, 어선을 위한 무장경비정과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으며, 세계의 전략적 위치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케플라비크에 대규모 공군기지가 있다. 어업입국이라는 국시(國是)에 따라 1975년에 어업전관 수역을 200해리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과의 사이에 '대구 전쟁'이 일어났으나 결국 영국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2001년 3월 셍겐조약(Schengen Treaty)에 가입하여 여행이 자유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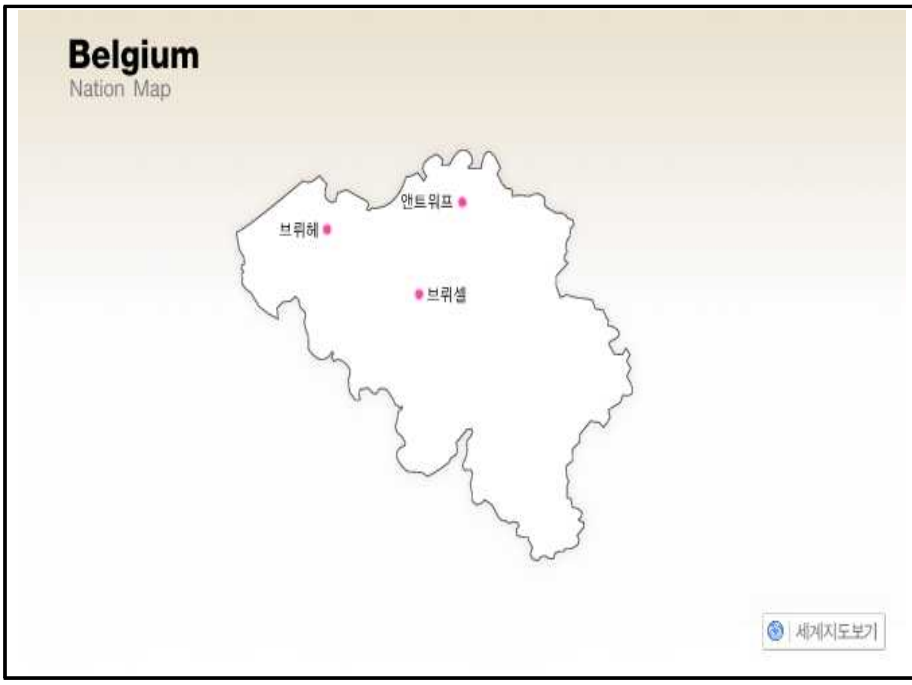
시차

GMT-1로 우리나라보다는 10시간 느리다. 즉 우리나라시간으로 낮 12시이면 아이슬란드에서는 새벽 2시이다.

통화

통화단위는 Krona(크로나)이다.

4. 벨기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벨기에는 관광국으로 또한 유명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 유럽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의 등의 세계 유명기구가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과 함께 서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 수 도: 브뤼셀(Brussels, 99.7만명)
◈ 인 구: 약 10,414,336명(2010년 기준)
◈ 면 적: 약 32.545㎢ (경상남북도 크기)
◈ 주요도시: 안트워프(Antwerp), 리에즈(Liedge), 강(Ghant), 몽스(Mons)
◈ 주요민족: 플라망족(58%, 화란어 사용), 왈롱족(41%, 불어사용)
◈ 주요언어: 북부 화란어, 남부 불어(브뤼셀에서는 두 언어 공동사용),독일어
◈ 종 교: 로마가톨릭 75%, 개신교 25%

기후

벨기에는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별로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곳이 있다. 벨기에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해양과 접해있는 영국의 남동부지방과 비슷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나 Ardennes지역과 같은 곳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연중 비가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일교차가 크고 춥다.

사회문화

사회복지는 1944년에 생긴 사회복지국(社會福祉局)에 의해서 운영되며 노동자의 유급휴가나 노인연금·실업수당·공중위생 등에도 용의주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취업률은 61.7%로서 EU 평균 64.6%에 이르지 못한다.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구조적 실업 문제에 기인하며, 주로 지식 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면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벨기에는 명목상으로는 1831년에 탄생한 신흥국가이지만, 로마시대부터 존속해온 게르만·라틴 양계의 복잡하게 얽힌 문화가 주민의 교양을 함양시켜 우아하고 세련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수세기에 걸친 전란의 역사는 도시 단위의 자위적 자치조직을 형성하여 인트라 무로스(성벽의 안쪽)라고 불리는 대소의 도시가 각기 개성이 풍부한 공동체로서 존속한다. 중세 이래 모직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함께 왕후귀족과 부유 상인을 후원자로 하는 예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벨기에에서는 만화의 인기가 높은데, '스머프'와 '탱탱(Tin Tin)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로서 벨기에는 세계적인 축구강국이다. 사이클이나 수영 등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벨기에는 여러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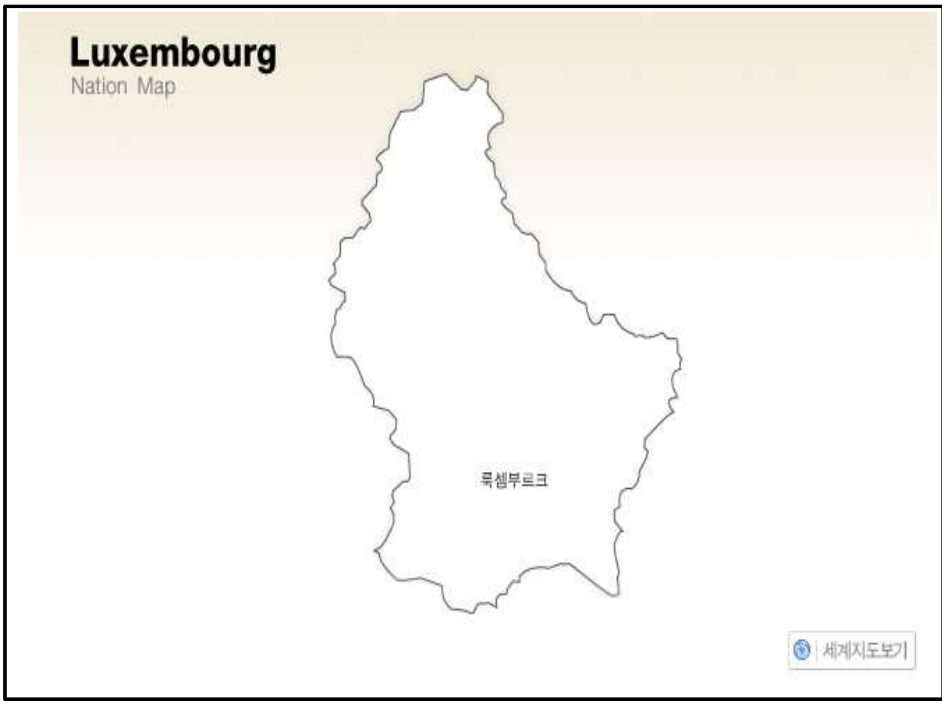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한국이 8시간 빠르다. 4월부터 9월중의 일정기간에는 썸머타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시간 중에는 한국이 7시간 빠르다.

통화

유럽통화가 유로화로 바뀌면서 벨기에도 유로화를 사용한다.
유로화: 1유로 = 약 1452원(2013.10.10 기준)
동전: 1센트, 2센트, 5센트, 10센트
지폐: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6. 룩셈부르크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에서는 작지만 강한나라로 통한다. 농업에만 편중되던 산업이 철강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럽 철강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더불어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현재는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현재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은행가 투자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 수도: 룩셈부르크(Luxembourg, 8만명)
◈ 인구: 491,775명(2010년 기준)
◈ 면적: 2,586㎢ (제주도의 1.5배)
◈ 주요도시: 브라쇼브(Brasov), 티미소아라(Timisoara), 콘스탄짜(Constanta)
◈ 주요민족: 게르만족(이탈리아계, 포르투갈계, 켈트계)
◈ 공용어: 독일어,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 종교: 로마가톨릭 87%, 개신교 13%
◈ 위치: 유럽서부, 북서부는 벨지움, 남부는 프랑스, 동부는 독일에 인접
◈ 교육: 의무교육 9년
◈ 기후: 온대성 기후
◈ 언론: 신문 Luxembourg Wort, Le Republicain Lorrain TV RTL, 라디오 RTL정치
◈ 국가성립: 1840년 네덜란드의 지배로부터 완전 독립
◈ 국경일: 6.23(국가원수 생일)

경제

국내총생산: 176억불(1인당 GDP 41,009불,2000년)
중점경제정책: 금융산업 집중육성
화폐단위: Euro(1 Euro=$0.89, 2002.1)
주요자원: 철, 석탄

지리

동쪽에는 독일, 북서쪽에는 벨기에, 남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3~4시간이면 유럽 주요 도시들인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텔담 등과 접근이 용이하다.

북쪽에는 산림과 농경지가 남쪽에는 광산이 발달되어 있으며 포도재배지가 많으며 광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으로 철광 산업이 발달되었다.

역사·정치

룩셈부르크는 963년에 지그프리드(Siegfried) 백작에 의해 건국되어, 1443년까지 백작령 및 공작령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1443년 부르군디(Burgundy) 공작에 의해 점령당한 뒤, 1815년까지 지배를 받았다. 1815년 빈회의에서 룩셈부르크의 지위가 종전의 공국에서 대공국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독립이 부여되었으나, 네덜란드 국왕이 대공을 겸하게 되고 프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게 되어 네덜란드와 프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1867년 1월 1일 독립하여 런던조약에 의해 영세중립의 지위를 얻고 프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였으며, 1868년 10월 17일 헌법을 제정하였다. 1890년에 네덜란드 왕 윌리엄(William) 3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함에 따라 독자적 왕가를 가지게 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 점령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룩셈부르크의 국가권력은 삼권분립에 의해 행사되나 입법과 행정의 분립은 여타 국가에 비해 불분명한 편이다. 대공은 국가원수로 수상 및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도좌파를 자처하고 있고, 1945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1867년 런던회의에서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1948년 이를 포기하였고,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기조로 하여 유럽의 통합을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베네룩스동맹을 통해 네덜란드·벨기에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차

서유럽 여타 국가와 같이 우리보다 7시간 늦으며 썸머타임 때(3월부터~10월까지)는 8시간 늦다.

통화

EU가 출범하면서 유로화를 쓰고 있다.(1유로 = 1,452.95원)

Ⅲ. 방문국 교육제도

1. 러시아의 교육제도

가. 볼쉐비키 혁명 이전의 러시아 교육

러시아에서 최초의 교육기관이 세워진 것은 1631년, 표트르 모길라가 키예프에 '모길라 아카데미'를 세워 문법, 수사학, 수학, 천문학, 음악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682년에 모스크바에도 이와 같은 아카데미가 세워져 러시아인들은 서구문화와 접촉하는 등 교육의 길을 열어갔다. 1755년에는 러시아 최초의 대학 모스크바국립대학이 세워졌다. 페테르부르크대학이 세워진 것은 1819년의 일이었는데, 당시 벌써 여기에 동양어학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교육시설은 19세기말 크게 확대되었다. 혁명이전 러시아의 교육시설은 김나지움이라고 부리는 중등학교의 수가 200개에 달했으며, 초등학교의 수는 거의 80,000여개에 달했다. 학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 세우기도 했는데,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와 체호프가 농민들을 위해 세운 학교들은 지금도 유명하다. 1899년 러시아에는 9개의 대학이 존재하였으며, 학생 수는 17,000명이었다. 당시 러시아 대학은 러시아 지성의 산파역할을 했다. 농노제와 철저한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의무감으로 충만하여 짜르전제에 대항하는 혁명가의 요람이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이러한 팽창 속에서도 여성들에게는 대학입학이 허용된 것은 1869년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고급여성강좌'를 통해서이다. 1870년대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키예프에서 여성들을 위한 대학이 설립되었고 여성의학전문학교도 만들어졌다. 당시 크림전쟁에 여성들이 간호사로 대거 진출하면서 러시아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 소비에트 시대의 교육

러시아는 볼쉐비키혁명 이전까지도 문맹률이 높았다. 1897년 러시아에서는 전체 남성의 29.3%와 여성의 13.1%만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쉐비키 혁명은 교육의 대중화를 가져와서, 1920년에 이르러서는 9세에서 49세까지의 사람들 중에 54%가 글자를 알게 되었고, 남자의 70%, 여자의 40%가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레닌은 기술적으로 잘 훈련된 인구 없이는 강한 산업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920년 '문맹청산학교'를 세웠다. 동시에 농민과 노동자들로 해금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19년에는 '노동자학부'라는 특별학교도 만들었다. 이로 인해 특

별학교에서 학생 수의 증가율은 높아져 1932년-1933년에는 609개의 특별학교에서 204,9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등 대중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소련정부는 1930년에 초등의무교육을 실시, 1949년에는 러시아의 모든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7년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소비에트교육은 피교육자의 지능지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능력별로 나누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 획일화되어 있어 선택 폭이 적고, 초등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모두 화학, 물리학, 수학, 그리고 지정된 과목을 배워야 했다. 이처럼 러시아 교육제도의 기본 틀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특징은 모든 교육은 무상교육이며, 그 중에서도 의무교육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3. 러시아의 교육제도

✪ 탁아교육

현재 러시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아동 탁아소이다. 여기에는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인 경우에 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주로 6개월에서 3살까지의 아이만 맡길 수 있다.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는 교육은 유치원에서 시작한다. 1970년대에는 도시 아이들은 절반 가량, 농촌아이들의 10%가 유치원교육을 받았다. 유치원이나 탁아소 비용이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이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들은 대부분 이들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만 농촌에서는 시설부족과 거리문제로 유치원 교육혜택이 낮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러시아의 무료체제의 탁아교육은 거의 붕괴하고 대신, 사립 탁아소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 탁아소도 예전처럼 무료가 아니라 일정한 탁아비를 내야만 한다.

✪ 초중등학교(쉬콜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보통 10년을 포괄하는 과정으로 쉬콜라라고 부른다. 10년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기간은 8년이지만 7년간만 교육을 받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아동들은 6～7세에 정규교육기관에 취학하여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는 8학년(초급학교 4년과 중학교 4년)까지는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9학년부터는 일차적인 진로선택을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과정(2년 과정)을 계속하거나, 일반 학과이외 특정 분야의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기술학교(제흐니쿰, 3-4년 과정)로 진학하거나 한다. 대체로 제흐니쿰 졸업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선호된다. 그밖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박약아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와 군사학교가 있다.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는 일종의 영재학교는 명성이 높아 우수한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다.

✪ 대학교육

러시아의 상급 교육기관으로는 종합대학과 특수대학으로 나뉘어진다. 특수대학은 의학·교육학·전기공학·도시계획·농학·국제학 외에 예술분야 등의 전문분야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흔히 '연구소''학교'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상급학교 입학시험은 1년에 1번 여름에 실시되며 평균 입학경쟁률이 5대 1정도이다. 그러나 학교의 명성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큰 편이다. 특히 구소련 시절에는 모스크바국립대학,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모스크바 외국어연구소, 모스크바 연극 및 예술 연구소 등은 평균경쟁률이 50대 1에 달했고, 최고 100대 1을 넘기도 했다. 대학의 수학기간은 보통 5년이며 졸업자격시험에 해당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연금 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일반대학에도 야간 및 통신과정이 있으며, 대개 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야간 및 통신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는다.

✪ 대학원 교육

러시아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한국이나 미국 등과 학제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5년제 대학과정을 마친 후 3년 과정의 '아스피란트' 과정을 다니게 되는데, 이 아스피란트 과정이란 박사과정(Ph.D)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러시아 학제도 외국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5년제 학부 과정을 학부 4년, 석사 2년으로 바꾸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러시아 대학원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아스피란트 다음 단계로 '독토란트'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러시아어에서는 '독토르'라고 부르는데, 아스피란트 과정후 일정 기간 동안 학문적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 과정을 준비한다.

4. 증가하는 사립학교

1995년 교육을 위한 예산상의 지출은 전체 국가 예산의 대략 3.6퍼센트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쉬콜라 학생들의 21퍼센트가 난방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교실로 2부제 수업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교사의 급여도 사회적인 기준에서 중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사들은 거의 학교를 떠났거나 보다 나은 급여를 약속하는 사립학교로 옮겨갔다. 러시아의 사립학교는 1992 교육법 개정이후 생겨났는데, 일반적인 러시아 가정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 수업료는 최소 1년 3,000불이며, 대학 진학과 영어와 경영학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자리잡고 있다.

2. 덴마크의 교육제도

가. 덴마크 교육제도와 그 배경

국가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덴마크, 아이들 한명 한명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풀어간다. 아주 느슨해 보이지만 학력수준은 유럽의 어떤 나라 보다 높고 이것은 대화를 중시하고 자유로우면서 비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탓 일수 있다. 학력경쟁과 수험 지옥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1) 민중운동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교육

교육의무는 있어도 취학의무는 없다. 19세기 초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면서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덴마크 국민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도 '아래로부터의 교육운동'을 높게 평가한다. 풀뿌리 시민운동을 높게 평가하고 이런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민중교육사에서 *니콜라이 그룬트비*와 *크리스톤 콜*이 있다. 그룬트비는 민중교육의 아버지로서 교육자이자 목사이고 시인이자 정치가이다. 풀뿌리 시민운동을 주도한 운동가이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삶을 위한 학교'라는 책을 쓰고 자립과 대화를 중시하는 교육운동을 말했다. 콜은 암기와 훈련에서 벗어난 학교, 자유학교를 만들었다. 중등과정인 에프터스콜레를 전국 각지에 만들었으며 공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주류이기 보다 '인가'받은 대안적 흐름으로 한 줄기를 형성해왔다.

2) 헌법이 보장하는 부모의 권리

덴마크는 취학의무가 없고 교육의 의무만 존재한다. 19세기 제정된 헌법에는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학교교육법 33조에는 '가정학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교육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규정하고 홈스쿨링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유학교법에도 부모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 공립 초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에 준하는 교육을 자유학교에서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전반적인 활동을 감사하는 일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가 담당하며 학부모회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제9조는 교육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부모이자 시민, 지역사회라는 의식이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교육선택의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가지 선택가능성을 말한다. 첫째는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학비는 무상이다. 둘째는 자유학교라고 불리는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인데 공립학교의 70%정도 되는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므로 별 부담이 없다. 셋째는 홈스쿨링이다. 가정은 많지는 않지만 그 권리는 오랜 세월동안 지켜져 왔다. 이외 제4의 선택은 그것은 스스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공적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교사 자격의 유무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 교육내용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기존의 것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대안을 선택하면 되고 대안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면 된다' 이런 기회를 언제나 열어 놓는 사회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3) 삶을 위한 학교

덴마크는 시험점수로 진단하는 평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평등'이란 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실천할 때 인간을 서열화하는 시험에 흥미를 갖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실시하지도 않는다. 사람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그룬트비와 콜의 말이 자주 인용되는데, 휴머니즘이란 경쟁 원리를 먹고 자라는 국가주의나 시장주의와 달리 자유학교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나. 자유교육과 다양성을 키우는 다원적 네트워크

1) 다양한 자유학교들

초·중학교는 1,671개가 공립이고 대안학교 격인 자유학교는 452개가 있으며, 취학연령 이상 아이들의 약 12%가 자유교육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학교, 중등학교 과정의 기숙학교, 진보 개혁 교육 반영하는 작은 학교, 교과교육을 중시하는 중간 규모의 실업학교, 개신교계 학교, 가톨릭계 학교, 기타 각 종교학교 등이 있다. 평균 학생 수는 학교마다 다르다. 실업학교는 300명 정도이고 작은 학교는 10명 조금 넘는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2) 자유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각각의 자유학교들은 자기 성격에 맞는 협회에 가입한다.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자유학교협회는 다른 협회에 비해 참가학교 동질성은 옅은 편이다. 다섯 가지의 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5가지를 말하면
이념적 자유, 교육적 자유, 경제적 자유, 고용의 자유, 선발의 자유 등이다.

3) 부모 참여와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육에 관한 부모의 강한 권리의식이 돋보이고 스스로가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의 결과물을 학교에 건의하는 등 자발적 움직임을 적극 지원한다. 사립학교도

반드시 인가 받을 필요가 없고 사실을 보고만 하면 된다. 자유학교법 제1조에서 밝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공립학교 정도의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자유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든 자유이다. 기획에 참여하고 행사를 주최하고 자원 활동을 스스로 한다. 교육활동과정을 세우는 일에도 참여하고 학교를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이 있다.

다. 자유를 살리는 제도

1) 보조금

전체 예산의 70%는 정부보조금으로, 30%는 부모가 내는 수업료로 충당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학생 수, 학생나이, 교사 나이 세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총액을 결정하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비영리 조직일 것
- 독립된 조직으로 학교운영에서 나온 이익은 학교를 위해서만 쓸 것
- 건물과 토지가 한 덩이로 있을 것
- 다섯 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질 것
-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교사가 있을 것
- 국가와 학교 노동 단체가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모든 교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동조건을 준수할 것
- 학생을 28명 이상 확보할 것

2) 자유학교의 교육평가 및 경영에 대한 감사

일 년에 200일의 수업일수, 최소한의 과목이수 등의 감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데 교육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만두는 경우는 없다. 경영면에서 시정 요구를 받기도 한다.

3) 이사회와 교장

학교운영위는 부모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장이나 교사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교육내용이나 재정에 관한 논의를 한다.

4) 교육부와 자유학교의 관계

국가는 공정하게 대하고 교육부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잘 도와주고 친절하다. 기본적으로 힘이 되려 하고 우호적인 관계이다. 자유와 보조금을 둘 다 얻을 수 있는 곳이다.

5) 유연한 조직 운동

대안 속의 대안을 만들어 왔고 그룬트비와 콜의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자유중등학교가 대부분이었고 1950년대부터 YMCA, YWCA 운동의 영향을 받은 학교가 만들어졌다. 1980년대 학습장애아를 위한 학교, 그 후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졌다.(그룬트비식 학교 36%, 종교적인 학교 22%, 예술체육학교 15%, 학습장애아 학교 14% 등)

라. 덴마크의 단계별 교육제도

1) 덴마크의 초등교육

덴마크의 초등교육은 7세~16세까지 이루어진다. 9년제 초급학교(Folkeskole,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결합)는 의무교육이며 만7세부터 16세까지 해당된다. 덴마크에서는 10세부터 영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14세부터 제2외국어를 학습한다.

2) 덴마크의 중등교육(16세~18세)

덴마크의 중등교육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일반 중등학교(Gymnasium)와 2~3년제 직업학교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한다. 직업학교의 경우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연수 분야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바로 직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 밖에 고등상업기술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3) 덴마크의 고등교육

덴마크에는 전국에 5개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학사과정(3년)이후 석사과정(2~3년)에 진학한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정부의 후원 아래 직장인이나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덴마크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덴마크 주요 대학으로는 코펜하겐 대학(University of Copenhagen), 오후스 대학(Aarhus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덴마크 남부대학(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 대학(Aalborg University), 스킬드 대학(Roskilde University), 코펜하겐 비즈니스대학(Copenhagen Business School), 코펜하겐 IT대학(IT University of Copenhagen) 등이 있다.

3. 벨기에의 교육제도

오랜 전란의 역사를 경험한 벨기에는 오늘날 교육문제에 국민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립 달성 이래 2대 정당의 정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항상 교육문제이며 그 때문에 '학교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1831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일찍이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그 운영이나 언어 · 종교가 교육체계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느냐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1423년에 창립된 루뱅대학교는 가톨릭 대학으로 2개어 병용, 1834년 창립된 브뤼셀대학교는 종교와 관계없이 2개어 병용, 1817년 창립된 리에지대학교는 프랑스어를, 헨트대학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다.

1914년에 6~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18세까지 실시되며, 15세 이상 문맹률은 2%이다.

벨기에의 공식어는 불어, 화란어, 독일어로 나누어져 있어 지역별 교육제도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다 EU 회원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은퇴 후 노후생활, 실업자대책 및 의료보험 등과 함께 학교교육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 교육비용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며 학부형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공립학교(43%)는 100% 국비로 운영되며, 사립학교(57%)는 95% 이상의 정부지원과 일부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심한 규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발표한 가장 우수한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초등학교

입학금 및 학교에 지불하는 금액은 일체 없고, 교과서 역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반납하고 물려받기 때문에 교과서 대금도 없을 뿐 아니라 1-2학년 중에는 학교공부에 필요한 노트까지 학교로부터 제공받는다.

✪ 중 ·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년말에 반납하기 때문에 교과서 대금이 없으며, 참고용 인쇄물 대금과 기타 학교 행정상의 명목으로 매년 학교에 지불하는 금액이 중학교는 약 80유로, 고등학교는 약 100유로. 그러나 중학교 과정까지는 스키방학, 외국여행 등에 약 500-800 유로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학부형의 학비 재정부담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 낙제제도

벨기에의 교육제도에서 낙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낙제가 공식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화 될 만큼 성행되어 왔다. 매년 초등학교 낙제율(유급)은 불어 지역에서 18%로 EU 회원국 중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약 25-30%, 대학 1학년에서 60%를 상회하면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중학교 1-2학년 중에는 낙제를 금하는데, 이러한 낙제 금지제도는 3학년 학생들의 일부를 단번에 낙제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2번 역속 낙제하면 학교 측이 보다 낮은 수준의 학교로 전학을 권고하던지 학부형과 본인 스스로의 결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상례이다. 대학 과정에서는 낙제율이 월등히 높다. 대학교에서 2번 낙제하면 타대학 등록마저 금지되어, 규정이 엄격화된 상태이다.

✪ 입학시험

입학시험이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학생이 지망하는 몇몇 대학의 유명학과의 경우에는 시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구청ㆍ시 혹은 국가가 운영하며, 사립학교는 대부분 카톨릭 계열로서 질적 차이가 없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명문학교가 있으며, 학교간의 수준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학부형들이 굳이 명문을 고집하지 않고 대부분 수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부형 자신이 졸업한 모교를 선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즉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국가가 마련한 조건들을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제도의 원리이다.

✪ 대학

벨기에는 1425년에 설립된 가톨릭 루뱅대학(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을 비롯하여 20여개의 대학이 전국에 자리하고 있다, 겐트(Gent, 네덜란드어계), 리에주(Liege, 프랑스어계), 앤트워프(Antwerp, 네들란드어계), 몽스(Mons, 프랑스어계) 등에 국립대학교가 있으며, 사립대학교로는 가톨릭 루뱅대학교, 브뤼셀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가 있다. 두 대학 모두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대학으로 나뉘어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수준이 왕립미술학교와 왕립음악원이 브뤼셀, 앤드워프, 겐트, 리에주, 몽주 등에 자리를 잡고 있다.

Ⅳ.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

1. 주요 방문기관

방문국	도시	주요 내용
러시아	모스크바	- Intellectual School (수학·과학 영재학교) 방문
	페테르부르크	- Tutti School (음악 · 예술 영재학교) 방문
덴마크	코펜하겐	- Ørestad Gymnasium 방문
벨기에	브뤼셀	-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방문 - ATC 고등직업학교 및 프란시스코 훼레 대학 방문

2. 각 나라 교육 기관별 방문 현황

국가(일자)	방문 기관	방문 내용	비고
러시아 9.23.(월)~9.26.(목)	Intellectual School (모스크바 영재학교)	◦ 학교현황 청취 - 교육과정(과학, 수학, 물리, 외국어, 예능 등) - 학교운영 방침, 학생선발 과정 등 ◦ 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 ◦ 질의응답 및 논의 - 인성교육 및 학생 진로교육 - 영재교육 현황 및 방안	
	Tutti School (음악 · 예술 영재학교)	◦ 학교현황 청취 - 학교 현황 및 역사 - 교육과정 및 수업지도 ◦ 교사의 대회 출전 학생지도 과정 참관 ◦ 학생들의 공연 관람 교육현장시설 견학 ◦ 질의응답 및 논의 - 학생 입학 및 교육과정	
덴마크 9.27.(금)	Ørestad Gymnasium (웨레스타드 고등학교)	◦ 학교현황 청취 - 교육과정 운영 및 설립 목적 - 학교설계의 특징(open space) ◦ 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 ◦ 질의응답 및 논의 -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 정책	
벨기에 9.30.(월)	벨기에 교육부	◦ 벨기에 교육 현황 청취 - 초·중등교육 및 대학지원 제도 - 벨기에 교육체계- 자율형 학교 운영 - 벨기에 제2외국어교육 정책 ◦ 질의응답 및 논의 - 우수교원 선발 및 임용 방안, 교원연수 방안 - 여성교원 지위확보 방안 - 교사·학생 교류 등 국제교류 방안 - 전반적인 학생 지도 및 관리	

3. 방문기관 소개, 방문 소감 및 시사점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Intellectual School)

방문일자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방문지소개 1	러시아 모스크바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 (Intellectual School)

1. 설립 역사

2003년 9월에 여러 분야에 고루 영재성을 드러내는 영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정서적 상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영재와 특수영재를 함께 교육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교육 성과도 분명하다는 러시아 영재교육 역사의 결과물에 기반을 두고 개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학문의 '발견자'이자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10년 간 일반영재를 모아 교육한 다른 영재학교의 경험을 살려 이 학교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그 후 모스크바에 있는 영재교육 전문교원들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을 개조하고 교원을 충원하였다.

물리와 역사에 고루 흥미가 높고 능력이 출중한 학생이라면 일반 학교나 특수 영재학교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능력을 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 이 학교에서는 주로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학생

첫 입학생으로 6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밀집되어 70명을 뽑았다. 현재는 5학년부터 8학년까지 총 27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매년 5학년을 뽑을 예정이고 현재 뽑힌 학생들은 11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한다. 현재 5학년 중에는 7세인 학생도 있다.

한 학급은 학생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목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이동한다. 교실에서 '듣는' 수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연구결과는 12월과 5월 2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9학년부터는 연구주제를 스스로 정하거나 교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돕는다.

3. 선발과정

3단계 선발 과정을 거친다.

방문지소개 2	러시아 모스크바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 (Intellectual School)

○1단계 - 수학 시험을 거치고 나서 수학, 생물, 언어, 역사 4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초 지식을 확인하는 단계

○2단계 - 창작활동 시험으로서 학교에서 부여한 것이나 학생 스스로 선택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양식을 적용하되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회를 거치는 창의성 테스트(기초가 약한 학생 중 창작활동이 월등히 뛰어난 영재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단계에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2단계 응시 가능하도록 함)

○3단계 - 2단계에서 선발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실시하며 8개 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2시간씩 2주간 실시하는데 이 기간 중 영재성 검사, 영재아의 심리 관찰, 영재아에게 적합한 수업 및 생활 방식을 적용한다.

4. 교과과정 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재성은 약 2~3% 학생만이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장애로 영재성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구성할 때 영재성 발달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하며, 그리고 학생이 흥미를 가지며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를 전문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 그 결과를 타인 앞에서 발표해보도록 한다. 이 학교의 설립부터 전 과정에는 영재심리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를 비롯한 다양한 영재심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5. 교과과정 2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고루 발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4교시가 끝나면 전체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산책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업이 이어지고 점심시간 후 충분히 뛰어 놀거나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한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은 학생들이 각각 다른 느낌을 갖도록 수업 방식과 내용을 만든다. 이를 통해 아이들을 덜 지루하게 하고 생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오전 수업은 특정과목별 기본 수업이 개인별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오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과정이 진행되며 이 시간은 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

현재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의 종류, 양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가르쳐 준다. 따라서 영재들이 당연히 갖출 최소한도는 정해졌으나 도달할 상위 수준은 정하지 않는다. 5, 6학년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인성과 교양을 위해 자연과학 뿐 아니라 특히 인문학 수업을 중요시한다. 역사 교실에는 슬라이드 자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역사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역사를 책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시시대를 수업할 때는 맘모스 뼈를, 고대를 수업할 때는 그 당시의 유물을 가져다가 만져보도록 한다. 생물 실험실이 딸린 생물 교실에서는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있어서 새가 날아다니거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 박제를 가져다 놓기는 했지만 학교의 설립 철학에 따라 아이들이 자연 그대로를 보다 가깝게 만나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 교과과정 운영의 원칙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키우고, 학생이 원하는 만큼 가르침

6. 교육 내용

인텔렉츄얼 영재학교에서는 수업은 물론 연구 활동을 장려하며 각 교과별로 학생들이 도달해야할 최소한의 수준은 정하되 최대 목표를 정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과목을 개인 지도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어려워 세분화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작은 그룹단위로 나누어 수업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현하고 영재아가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은 저마다 다른 교과과정을 가지게 된다.

오전 기본 수업 후 오후에는 특별수업을 실시하며 특별수업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분야와 음악, 무용 등 예술분야, 언어분야, 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학생들이 배우고 싶거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작은 그룹이 만들어지며 나이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관심분야별로 참여한다.

이 학교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절대 평가보다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전학년 동안 누적집계 하고 있으며 모든 창작활동은 반드시 발표회를 거쳐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이는 각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타인들 앞에서 서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7. 교원

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교원문제였다. 다방면에 관심과 능력이 있고 아이들과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교과서를 스스로 쓰거나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교사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 교원은 100명, 주로 젊고 남자들이 많으며 이중 절반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야별 전문가, 즉 겸임 교사로 박사도 상당수이며 주로 모스크바 국립대, 물리대학, 국립사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그러나 교사의 학위를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다.

주요활동	인텔렉츄얼 영재학교를 방문하기로 약속된 날 학교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 날 식중독균 발견으로 휴교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출근한 상태고 멀리서 온 방문객을 배려하여 차질 없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학교는 커다란 철문으로 철통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운동장 없이 바로 현관으로 이어졌다. 정문 들어선 안쪽 한쪽에는 학교의 설립자 동상이 있었다. 학교가 휴교 중이라 학생들은 만나 볼 수 없었다. 학교 내부에 들어서 곧장 교장실 옆 회의실로 가서 학교전반에 대한 설명을 교장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듣고 궁금 사항에 대한 질문·대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교실과 과학실, 생물실 등의 교실과 휴게실까지 모두 돌아보았다. 학교는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낡아있었다. 한국의 영재학교에서 볼 수 있는 최첨단기자재와 멋진 시설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다만 교실칠판에 수학올림피아드대회 참가를 위해 문제를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것을 보고서야 이곳이 영재학교구나 알 수 있었다.
시사점	인텔렉츄얼 영재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50개의 선택과목 운영, 스포츠·창의동아리·비디오 및 연극 써클 운영, 그룹리서치 프로젝트 운영, 컨퍼런스 개최, 각 분야 전문가 및 명사 초청 특강 등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70개의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자율과 재량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대전의 영재교육을 질높게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템을 시사하고 있다.
소감	인텔렉츄얼 영재학교는 다른 영재학교와 달리 수학·과학인재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특히 예술과의 융합을 중요시하고 외국어학습과 봉사활동도 강조하고 있었다. 요즈음 융합교육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10년 전부터 융합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러시아를 보며 우리의 융합교육을 진지하게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로 보안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뚜띠 음악·예술 영재학교(Tutti State School)

방문일자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크 **뚜띠 음악·예술 영재학교 방문**

1. 학교 소개

주소: Saint-Petersburg, Liteyniy ave. 46

Tutti 학교는 1990년 10월 2일 음악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다. Saint Petersburg에 이 학교를 설립한 주요 목적은 음악의 창의적 잠재력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Tutti 학교는 63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악과 일반과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집중 수업은 개인 교습(피아노, 현악기, 타악기, 합창 작곡)과 그룹 교습(협주, 음악이론 수업, 합창 및 연기)에 적용되고 있다.

다른 영재학교들처럼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통합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교직원

Tutti 학교의 교직원은 음악가인 교사들과 일반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는 3명의 연방러시아 음악단의 음악가와, 4명의 러시아 정부 문화부의 단원과, 5명의 과학 분야 교원, 3명의 일반교육 담당(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교원이 있다.

3. 학생

모든 졸업생들은 Saint Petersburg의 대학이나 모스크바 또는 해외에서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학생들이 진학하는 4개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위 교육기관은 Saint Petersburg 주정부, Saint Petersburg 극단, Saint Petersburg 주립대와 영화연극 대학교이다.

4명의 졸업생은 Tutti 학교에서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활동	◦ 뚜띠 음악 · 예술 영재학교 현황 청취 - “뚜띠”의 용어는 이탈이라 용어이며,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 전체 연주할 때 “뚜띠”(앙상블) 라고 함

방문일자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오후
방문지소개 2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크 **뚜띠 음악·예술 영재학교 방문**
주요활동	◦ 학생들에게 악기나 성악을 지도하는 교수법, 실제를 참관 - 악기 연주 - 성악 지도(발성법, 감정표현 등) ◦ 학생들의 합창과 악기 연주 참관 ◦ 질의응답 - 학생 선발 방법: 각종 음악 콩쿨 입상 경력 등을 참고하고, 서류 전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에 대한 대안: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악 관련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의대나 경영대학을 가는 학생도 간혹 있음 - 음악 영재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음악을 전공하셨는지의 여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듣는 것은 잘함
시사점	1. 학생 지도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2. 학생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권장하고 때로 교사와 학생간의 일대일 도제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3. 유연성 있는 진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 음악의 영역 중 자기가 선택한 영역의 재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는 다른 음악 영역(예를 들면 음악 감독, 음악 교사, 지휘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4. 정규교원뿐만 아니라 고학년의 우수한 학생을 지도할 경우에 대학의 교수인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5. 고학년의 우수한 학생을 지도할 경우에 대학의 교수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소감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교사 대 학생의 비율 등)은 우리에게 부러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훌륭한 음악가나 작가 등 예술가를 많이 배출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았다.

덴마크 코펜하겐 웨레스타드 고등학교(Ørestad Gymnasium)

방문일자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덴마크 코펜하겐 웨레스타드 고등학교(Ørestad Gymnasium)

1. 학교 소개

웨레스타드 김나지움은 2006년에 설립된 정보통신 및 최첨단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자립형 공립고로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는 스마트교육 특성화 학교이며, 학생들의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수준별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학습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 설립 당시부터 미래중심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Open Space(열린 공간) 구조로 학습 공간의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다.

2. 교사

교사는 팀을 이루어 Digital School의 기본 조직 단위가 되어 IT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동료 간 사용을 독려한다. 교육계획을 공유하며 교수자료와 교육과정 설계를 공동사고에 의해 만들어내고 전자도서관을 적극 활용한다.

IT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교사 공간은 따로 없고 기둥에 143, 145 등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구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활동 점검을 가능하게 하였다.

3. 학생

학생은 모두 1,160명인데 모든 학생들은 50대 50 비율로 전통적 수업과 개방형 수업을 교체적으로 받고 있는데 580명의 학생이 Open Space에서 학습할 때 나머지 학생들은 전통적 형태의 교실에서 대규모, 또는 소규모 그룹의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한다.

580명이 열린 공간에서 동시에 활동을 할 때 소음 등의 학습장애가 없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개인적인 IPad를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코멘트 및 개인적인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웨레스타드 김나지움에서는 학생들에세 3E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첫째가 Explore - IT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가 Expression -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가 Exchange -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방문지소개 2	덴마크 코펜하겐 웨레스타드 고등학교(Ørestad Gymnasium)

4. 학생 선발

학생은 선지원 후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거리 위주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모두 670명의 학생이 지원을 해서 350명을 선발할 정도로 덴마크 내에서도 꽤 인기 있는 학교이다.

그러나 입학 당시의 높은 기대 수준으로 인해 20%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데 이 때는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학교로 안내를 하고 있다.

5. 수업 전개

교사는 수업목표만을 제시하고, 수업은 학생 중심의 수준별 그룹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 학생간 토론으로 진행되고, 교사는 궤간 순시를 하며 필요에 따라 학생지도를 하는 미래지향적 수업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이며, 학생 개개인에게 IPad,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제공하고 넓은 열린 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간 또는 학생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학습내용 활용이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지는 선진화된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교과서

교과서는 e-book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담당 교사의 수업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업자료들과 학생들이 개발한 학습자료들도 개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0년 완전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학교답게 디지털 텍스트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읽고 쓰는 학습은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검색과 작업은 데스크탑 PC를 활용하고 있다.

7. 학교 시설

학교 시설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특별히 시에서 계획하여 지어준 학교로 교장실과 행정실이 서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 안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고 교사들의 공간은 별도로 없으나 교사와 학생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있었다. 강당 및 공연장 등은 목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강조하였고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큐션 공간과 1층부터 5층까지 뚫린 채 연결된 계단은 학생들의 Meeting Point가 되고 있다.

주요활동	웨레스타드 김나지움은 코펜하겐 신시가지 넓은 부지 위에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었다. 1층 홀에 들어서자 크고 멋진 홀이 마치 호텔 리셉션처럼 멋지게 꾸며져 있었고 훤칠한 교장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15~19세 고등학생을 위해 2005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7년에 사립학교 재단형태의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개교했다는 안내를 시작으로 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기본 커리큘럼은 중앙집권적이나 학교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모든 덴마크의 고등학교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학교 역시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학교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미래중심형 학교 구축에 중심을 두고 구조적 설계를 하였으며 교사의 가르치는 양식까지 고려하여 칸막이와 칠판, 책상이 있는 전통적 교실 50%, 나머지는 Open space로 50%를 이루고 있다. 교장선생님의 학교 설명이 끝난 후 교장실과 행정실의 열린 공간을 비롯하여 카페테리아 분위기의 교실, 강당, 공연장 등 학교의 곳곳을 돌아보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학교 설명을 듣고 있는 중에도 학교를 찾는 다른 방문객들이 꽤 많은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라는 교장선생님의 설명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시설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웨레스타드 김나지움(Ørestad Gymnasium)은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학교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 수업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Open space에서 대규모, 소규모의 그룹을 형성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대전교육에서도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창의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감	학교 입구에서부터 교장선생님 혼자 맞이하고 각종 기기를 교장선생님이 직접 다루며 학교 설명을 하는 모습과 별도의 교장실도 없이 행정 업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는 모습이 우리와는 차이가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 지도 시에 일방적인 지시나 일제식 수업 방식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그룹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 방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였다.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방문

방문일자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방문

1.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현황

벨기에는 프랑스어, 네델란드어, 독일어의 3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중언어 사용국가로서, 불어권역, 네델란드권역, 독일어권역으로 나뉜다. 브뤼셀시는 불어권역과 네델란드어권역이 존재하는데 모든 학교는 언어권역별 지방정부에 의해 경영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부에 의해 경영되는 부분도 있다. 언어권역별 정부가 상위 기관이다. 언어권역별로 서로 다른 교육법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는 시정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교수방법은 같다.

브뤼셀시는 54개의 불어권 학교와 11개의 네델란드권 학교를 운영한다. 브뤼셀시는 65개의 학교와 15개의 도서관, 학생들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의학적, 사회적 관리를 하는 센터를 관리 경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 브뤼셀 교육국의 권한

시정부의 교육국은 학사일정, 교육과정 필수과목, 교사연수 등 제한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언어권역별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학생선발, 교사정원, 학교예산배정 등 주요 권한을 갖고 있다.

언어권역별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권한이 있다.

가. 연중 수업일수, 나.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 다. 중등학교에서의 과목당 수업시수, 라. 수업 시간(50분), 마. 학생 선발 기준(무시험), 바. 학교 예산의 할당, 사. 교사 정원, 아. 교장과 교사의 봉급, 자.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여부 등

브뤼셀 시정부의 교육행정권한은 주당 수업시간표, 교과서 선정, 교육방법, 학생평가, 학생유급 결정, 시험 내용, 학교 규칙, 학급 편성 기준, 예산 분배, 교수학습자료 구비, 기부금 모금 등이 있다.

3. 브뤼셀시의 학교 현황

브뤼셀시에는 4,000명의 교사와 40,000명의 학생이 있다. 브뤼셀시에는 불어를 사용하는 학교로 유아와 초등학교가 23개, 영재 및 특수학교가 5개, 중등학교가 16개가 있으며, 또한 3년제 사범대학이 1개 있으며, 미술학교가 1개, 성인교육학교가 7개가 있다. 네델란드어를 사용하는 초, 중등학교가 11개가 있다.

방문지소개 2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방문

4. 시정부의 학교 관리 역할 및 교육행정의 3가지 원칙

브뤼셀 시정부는 새로운 교수전략을 개발하고 혁신적 교수방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며 학교 건물 관리, 학교 비품 및 장비 관리, 교직원 인사 및 경력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교육행정의 3가지 원칙으로는 첫째, 민주주의(학부모와 사회가 학교경영에 참여, 학교경영에 민주성과 가치를 증진), 둘째, 중립성(소속된 모든 학교에 재정 지원을 공평하게 실시), 평등성(인종, 문화, 정치적 신념, 철학, 빈부, 종교, 성, 장애 등으로부터의 평등 보장)이다.

5. 교육 이념

브뤼셀시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가치관으로는 첫째, 비판적 사고와 표현의 자유 증진, 둘째, 과잉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참을성, 셋째, 인내, 자유, 기본권 존중, 넷째, 학생 개인 의사 표현 능력 신장 등이다.

또한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하여 이민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협력 및 차이점 인정 교육을 실시하고 타인과의 협동 학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6. 학비

벨기에는 학비가 무료이며 교과서도 반납하고 물려받으며 학용품도 일부 지원한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 교육비용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며 학부형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공립학교는 100% 국비로 운영되며, 사립학교는 95% 이상의 정부지원과 일부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7. 기타

브뤼셀 교육국에서는 21세기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IPAD, interactive whiteboard, e-learning 등의 IT 환경 구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교사의 질 개선 및 소속감 향상에 힘쓰고 대학교수,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와 경험을 제공하며 교사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있다.

주요활동	◦ 벨기에 교육 현황 청취 - 벨기에 브뤼셀 교육국 현황 및 브뤼셀 교육국의 권한 - 교육 이념 및 초·중등교육 및 대학지원 제도 - 시정부의 학교 관리 역할 및 교육행정의 3가지 원칙 - 벨기에 교육체계 및 자율형 학교 운영 - 벨기에 제2외국어교육 정책 ◦ 질의응답 및 논의 - 교사·학생 교류 등 국제교류 방안 - 전반적인 학생 지도 및 관리 벨기에 교육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 운영과 마찰이 없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주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성을 길러주고 학생들의 개인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세계시민 양성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브뤼셀 교육은 학부모와 사회가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행정원칙, 모든 학교에 재정지원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중립성의 행정원칙과 인종, 문화, 빈부, 종교, 성, 장애 등으로부터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성의 행정원칙이 모범적으로 지켜지고 있어, 우리 교육의 교육행정 방향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또한 교육국은 학사일정, 교육과정 필수과목, 교사연수 등 제한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언어권역별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은 학생선발, 교사정원, 학교예산배정 등 주요권한을 갖고 있는 점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좋은 본보기였다.
소감	30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0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또한 만 14세가 되면 진로를 결정하여 대학진학을 할 것인지 직업학교로 갈 것인지를 정하여 중등과정인 15~16세에 이미 직업교육을 도제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한다. 벨기에 순방으로 얻은 다양한 교육정책 및 학교경영 모델은 선택과 집중의 고효율 미래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와 견문이 되었다.

벨기에 브뤼셀 ATC 고등학교 및 프란시스코 훼레대학 방문

방문일자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벨기에 브뤼셀 ATC 고등학교 및 프란시스코 훼레 대학 방문

1. 학교소개

주소: Rue de la Fontaine 4, 1000 Bruxelles, Belgium(☎ +32 279 5810)

웹사이트: http://he-ferrer.eu

The Haute Ecole Francisco Ferrer of the City of Brussels은 6개 카테고리(응용예술, 경제학, 준의료 활동, 교육, 기술, 통역)에서 매우 광범위한 학문적 프로그램을 볼로냐 협약 프로세스에 의거, 약 50여개의 단기 코스(BA) 및 장기 코스(MA)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3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첫째, 튼튼한 이론적 요소, 둘째, 수없이 많은 전문 직업인들이 참여하는 실용적인 트레이닝, 셋째, 인턴십이다. 학생 수는 약 3,000명이다.

2. 교육목적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조화롭게 습득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특징

고등교육기관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별 프레임워크와 세부적인 액티비티들을 지원하고 있다.

3~4년 과정의 단기 코스(Bachelor's degree)는 졸업생의 취업을 목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트레이닝으로 인턴십을 통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4~5년 과정의 장기 코스(Master)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직업훈련이 가능한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과학적 목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훈련을 제공하여, 본인의 행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적 목표: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직업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 학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문일자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2	벨기에 브뤼셀 ATC 고등학교 및 프란시스코 훼레 대학 방문

✪SAR(Service d'aide success): 학생들의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교육적 지원 서비스
✪국제협력을 통한 교환 교수·학생 프로그램 제공
✪정신·신체·사회적 서비스 통합: 사회복지, 거주, 식당, 의료, 정신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임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교유관계 및 협동성 증진

주요활동	◦ Francisco Ferrer 대학의 유아교육과 불어교수의 대학 소개 및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청취 ◦ 유아교육과 학과장의 교육과정, 교수, 교사 양성교육의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의 브리핑 (유아교육 전공하는 한국학생의 불어 통역) ◦ 질의응답 - 학생들의 유치원교사에 대한 선호도: 120명 입학해서 60명 정도 수료하는 실정이며 선호도가 높은 편은 아님 - 학생들의 교육실습 중에 교수들이 유치원을 방문해서 학생이 유아지도하는 방법 및 테크닉에 대해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줌 ◦ 학교 시설 참관
시사점	1. 교사 양성과정에서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중점 교육하여, 유아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업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10년간 교사 평가를 과목별로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유치원교육을 초등학교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
소감	학생을 유치원 교사로 양성해서 유치원 현장으로 보내고 난 후에도 10년간 대학에서 교사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의 대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준비기간으로 보는 관점은 유아들의 발달에 맞게 적기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유아를 지도하는 교수방법이나 아동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운면이 있다.